

옛 사람들의 편지글 I

기간 2012.12.11 ~ 2013.06.30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험관 석전기념실

석전 황욱 선생의 아들 황병근 선생이 수집하여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한 간찰들을 전시하였다. 전시에 소개된 簡札, 즉 편지글은 옛 사람들의 참 모습을 가장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문헌으로 작은 편지글 속에서 선인들의 서정과 여유, 현재와 다르지 않은 진솔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한류, 통신사

기간 2012.12.25 ~ 2013.02.24.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 사절단은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에 대한 감흥을 풀어주었고,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타자에 비친 우리 문화의 모습, 품격 높았던 조선시대 우리문화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천년 전의 타임캡슐

기간 2012.12.25 ~ 2013.03.03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신창동 유적 사적 지정 20주년을 기념하여 신창동 유적의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신창동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생산과 생활 그리고 무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대한 복합 유적으로, 805점의 유물이 전시된 압도적 규모의 전시였으며, 2,000년 전 신창동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복원하여, 과거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축석루를 그리다

기간 2012.12.29 ~ 2013.02.28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효석(曉石) 조영제(趙榮濟, 1912~1984)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축석루를 그리다' 특별전시는 유화와 수묵담채, 병풍 등 축석루의 사계를 담은 작품은 물론 목련, 해바라기, 수련, 국화 등 다양한 꽃 그림과 함께 금강산과 삼천포 풍경 등 화백의 많은 작품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를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재이자 역사적 건축물인 축석루의 풍광을 지역 출신 화가의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名品

기간 2013.01.17 ~ 2013.05.31

장소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보, 보물을 모은 '명품'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국보 1점과 보물 3점을 포함하여 이전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박물관 소장품을 공개하였다.

그림으로 서재를 품다, 책가도

기간 2013.01.29 ~ 2013.04.28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2층 미술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꿈꾸던 서재를 그린 책가도를 살펴보는 <그림으로 서재를 품다, 책가도>를 기획하였다. 조선 후기 궁중이나 상류계층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冊架圖'는 '책거리'라고도 불리며, 책은 물론 각종 골동품이나 문방구, 꽃 등 여러 물품들을 그려 넣었다. 전시에는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하여 전북대학교 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가도 4점도 함께 공개하였다.

신라인들이 빚은 작은 뱀

기간 2013.02.05 ~ 2013.03.10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1층 로비

국립경주박물관은 쫓겨난 年을 맞아 '신라인들이 빚은 작은 뱀'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를 비롯한 10점의 전시품을 소개하였다. 다산의 상징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기피의 대상이기도 한 뱀의 이중적 상징성을 다채로운 뱀 토우들을 관람하며 신라인들의 내세관과 조형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미국 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

기간 2013.02.05 ~ 2013.05.26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휴스턴미술관, 테라미국미술재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18세기 미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대표적인 미국 회화, 공예품들을 소개하였다. 이 전시는 잭슨 폴락, 앤디 워홀 등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동결

기간 2013.02.27 ~ 2013.05.12

장소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각기 소장하고 있는 <동결도>의 원본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동결도는 당시 유행했던 화풍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궐의 전체 모습을 조감하여 완벽히 재현하고 있어 건축, 조경 등 궁궐 복원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전시는 두 원본의 <동결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봄을 찾아온 동자

기간 2013.03.12 ~ 2013.04.14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조선 최고의 화가 중의 한 명인 檀園 金弘道(1745~1806이후)의 道釋人物畫에 등장하는 仙童(신선

세계에 사는 아이)를 비롯하여 동자들을 그린 조선 후기 회화를 중심으로 총 11점을 전시하였다. 단원 김홍도의 신선 그림이 춘천에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홍도 자신이 신선과도 같았던 그의 그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기간 2013.03.12 ~ 2013.05.26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공주박물관의 2013년 첫 번째 특별전시로 바다를 건너간 다양한 물그릇 중 청자와 백자 및 계룡산에서 만들어진 철화분청사기를 전시하였다. 더불어 짚을 바르지 않고도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제주의 섬그릇인 허벌을 전시하여 바다를 건너간 물그릇과 섬이 만든 제주만의 섬그릇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

기간 2013.03.19 ~ 2013.05.19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여러 섬에 정착한 중국계 이주민과 현지 주민 사이에 형성된 혼합문화인 페라나칸을 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하였다. 이 전시는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와 아시아문명박물관 소장품 230점을 전시하여 전시를 통해 싱가포르에 정착한 중국계 페라나칸 문화가 세계화된 싱가포르 사회에서 어떻게 융화되어 발전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편견 없는 수용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금은보화 - 한국 전통공예의 미

기간 2013.03.28 ~ 2013.06.02

장소 삼성미술관 리움

<금은보화 - 한국 전통공예의 미>展은 금과 은을 활용한 공예품에 보석으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을 더해 한국 미술의 화려한 면모를 선보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고대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예품들의 찬란한 예술성을 조명하고자 금과 은, 보석이 지니고 있는 재질적 특징과 재료들을 장식과 기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전 시대에서는 한국미술에 내재된 화려함과 정교함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으로 쓴 역사책

-국보 반구대 암각화-물속에 잠깁니다.

기간 2013.4.2 ~ 2013.5.26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반구대 암각화는 문자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그림으로 쓴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오랜 기간 우리 곁을 지켜왔으나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이, 물속에 잠기게 된 반구대 암각화의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존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전시를 통하여 반구대 암각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초원의 대제국, 흉노

-몽골 발굴조사성과전

기간 2013.04.30 ~ 2013.06.19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시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에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사한 몽골 헨티 아이막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중, 총 길이가 54m가 넘는 대형 무덤과 그 배장묘를 중심으로 유적 발굴 성과를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에서는 도르릭나르스 1호 무덤에서 출토된 옥벽 등 100여 점을 선보였다.

국립부여박물관 이전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기증으로 빛난 문화재 사랑

기간 2013.04.30 ~ 2013.06.30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부여박물관이 199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관한 지 20년을 기념하고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 주신 여러 기증자들의 마음과 뜻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민병윤 기증 <분청사기 연꽃 물고기무늬 병>을 비롯하여 백제와 당과 벽돌, 백제 토기, 고려시대 금동보살입상과 상감청자, 조선시대 백자 명기 등 380여점에 달하는 다양한 기증유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개하였다.

꽃, 그 내음에 취하다

기간 2013.04.30 ~ 2013.07.28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2층 미술실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예로부터 꽃은 그림의 중요한 소재로 공예품의 문양으로도 선호되었다. 전시는 이러한 꽃을 주제로 한 그림과 공예품을 살펴보는 테마전으로 채용신 필 화조도 병풍, 조주승의 국화그림, 백자 국화무늬 항아리 등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6점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인 벽화 조주승과 채용신이 꽃을 대하는 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정조의 효성과 노인공경

기간 2013.05.07 ~ 2013.09.08.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 국왕의 효성과 노인공경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전시로 정조의 효성과 관련된 글과 글씨, 그림, 인장 등 14건 17점의 유물을 공개하였다. 이 전시는 정조의 왕실 웃어른에 대한 효성이 왕실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노인에 대한 공경으로 확산되었음을 소개하였다. 또 비명에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엿볼 수 있었다.

民書: 상상의 나라_민화여행

기간 2013.05.10 ~ 2013.09.14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호림박물관이 오랜 기간 수집해 온 민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로 다양한 민화 속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듯 살펴보고, 소재 하나하나에 담긴 옛 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따뜻하게 느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남도문화전Ⅳ-순천

기간 2013.05.07 ~ 2013.06.30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라남도 순천에 꽃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로 보물 6점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4점 등 순천 관련 문화재 총 360여 점을 선보였다. 전시는 총 5부로 나누어 순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표암과 조선남종화파전

기간 2013.05.12 ~ 2013.05.25

장소 간송미술관

조선후기 예술계를 이끌었던 표암 강세황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간송미술관에서는 춘계 정기전으로 12일부터 포암과 조선남종화파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에는 남종화의 거장 豹菴 강세황(1713~1791)의 작품을 중심으로 표암 화풍의 영향을 받은 송하 조윤형, 서암 감유성, 연농 원명유, 단원 김홍도, 금재 김득신, 혜원 신윤복 등 20명 작가의 남종산수화와 사군자 등 70여 점을 선보였다.

조선의 소반

기간 2013.05.14 ~ 2013.06.30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시대 소반의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의 가치를 조

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에서는 소반을 사용하게 된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소개하고 소반의 다양한 용도와 종류별 특징을 집중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소반과 관련된 회화, 공예품, 근대기 자료도 전시하여 조선시대 소반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관동팔경Ⅱ, 양양 낙산사

기간 2013.05.14 ~ 2013.06.30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강원도의 주요 문화 키워드인 관동팔경을 매년 한 곳씩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전시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2012년 '강릉 경포대'를 이어 두 번째로 낙산사 관련 유물과 낙산사를 다녀간 시인묵객들의 시·서화 및 현대작품 등을 전시하였다. 전시를 통해 낙산사를 중심으로 한 의상대사와 관음신앙, 예술과 문화 교류, 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시로 구현하여 낙산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동팔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

기간 2013.05.14 ~ 2013.06.30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로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승세계의 영혼을 慰撫하고 구제하는 “地藏菩薩”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고려말 조선초의 조각양식을 반영한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지장보살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장보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장보살이 부처가 되길 거부하고 미혹한 중생을 제도하는 菩薩道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神衆-불교의 수호신들

기간 2013.05.14 ~ 2013.09.08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

〈神衆-불교의 수호신들〉은 조선후기에 발

현한 다양한 형식의 신중도를 전시하고 신중 신앙이 가진 의미 소개한 전시로서 불교나 불화를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 관람객들도 충분히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누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던 신중도의 여러 신들을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매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신들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사람들의 소박한 소원을 간직한 신중도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큰 스님 글씨 월정사의 한암과 탄허

기간 2013.04.16 ~ 2013.06.16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 서예실

국립중앙박물관이 탄허 스님의 탄신 백주년과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고자 기획한 전시로 월정사와 탄허불교문화재단, 자광사, 통도사, 한마음선원, 탄허기념박물관 등에서 소장한 두 스님의 글씨 및 삶을 보여주는 자료 등 80여 점을 전시하였다. 한암과 탄허 두 스님이 남긴 글씨를 통해 수행과 깨달음, 삶의 자세 등을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제주에서 만나는 부처의 미소

기간 2012. 10. 30 ~ 12. 16.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한국의 불교미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상을 통하여 불상이 갖고 있는 조형미와 예술성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제주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전시는 삼국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불상의 종류와 형태, 양식변천, 특징을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비상(佛碑像), 염원을 새기다

기간 2013.04.23 ~ 2013.06.23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

국립청주박물관은 통일신라시대 불비상을 전시하는 <불비상, 염원을 새기다>특별전을 기획하였다. 이 전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7구의 통일신라시대 불비상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로 불비상의 존명과 도상적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전 준비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판독의 신기술인 RTI(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촬영을 이용하여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 새겨진 글자 중 20여자를 재판독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부처님 오시다

기간 2013.04.23 ~ 2013.06.02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불기 2557년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개최된 <부처님 오시다>전은 온화한 얼굴 표현과 눈을 가늘게 뜨고 명상하는 모습의 목조 여래좌상과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고 왕생극락을 기원하기 위해 1397년(태조 6)에 제작된 청동은입사청곡사명향완을 대표유물로 전시하였다.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수준 높은 조형미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야의 아름다움을 탐하다

기간 2013.04.23 ~ 2013.11.03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누리관 3층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12월에 있을 상설 전시 개편을 대체하여 상설전시실에서 볼 수 있었던 주요 유물만을 선별한 기획전시이다. 가야 고고학이라는 전문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만큼 '가야의 아름다움을 탐하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교육기관으로써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백제학회 제13회 정기발표회 “한성지역 백제 고분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

일자 2013년 3월 2일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1. 석촌동 고분군의 재인식과 해석
- 조가영(서울대학교 박물관)
2. 방이동 고분의 재인식과 해석
- 이현숙(공주대학교 박물관)
3. 문헌으로 본 한성기 백제고분의 제문제
- 이도학(전통문화대학교)
4. 가락동 2호분의 재인식과 해석
- 김일규(서울문화유산연구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48회 춘계학술발표회

일자 2013년 3월 16일

장소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시청각실

1. 知恩院 소장 조선전기 〈地藏十王地獄圖〉 연구
- 백은정(동국대학교)
2.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연구
- 김민호(고려대학교)
3. 인격화된 산수: 吳派의 別號圖
- 유순영(홍익대학교)
4. 고려말 상감청자의 양식과 조선초 인화분청사기의 의의
- 박경자(문화재청)

한국미술사학회 제187회 월례연구발표회

일자 2013년 3월 23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趙廷奎 魚蟹圖 연구
- 유치석(국립중앙박물관)
2.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발견 금제여래좌상 연구
- 임세운(국립고궁박물관)
3. 조선 전기 墨書銘白瓷의 특징 및 의미
- 박정민(한울문화재단연구원)
4. 朝鮮末期 獨聖圖 研究
- 신은미(인천검단선사박물관)

‘쟁점 백제사’ 집중토론 학술회의 II “근초고왕 때 백제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일자 2013년 3월 30일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1.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_문헌적 측면
-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2.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_고고학적 측면
- 심재연(예맥문화재단연구원)
3.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_문헌적 측면
- 강종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
4.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_고고학적 측면
-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

일자 2013년 4월 6일

장소 명지대학교 행정동 5510호

1. 근대기 韓佛도자 교류
- 엄승희(숙명여자대학교)
2. 다방의 장소적 특성을 통해 본 신사실파의 조형의식
“추상미술과 순수문학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박장민(이화여자대학교)
3. 대한민국 정부수립기(1945-1954)의 미술교과서 삽화
- 이수나(이화여자대학교)
4. 1990년대 문화변동과 미술비평연구회를 중심으로
- 기혜경(국립현대미술관)

동양미술사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자 2013년 4월 20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1. 고려정궁 眞殿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2. 개성 高麗宮城址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 최명지(국립문화재연구소)
3. 고려후기 수월관음보살도의 도상성립에 관한 고찰-雙竹 묘사를 중심으로
- 조수연(동국대학교)
4. 단원 김홍도 안기찰방시절 서화교류-경상 안동지역 관료와 사족을 중심으로
- 이태호(명지대학교)

한국미술사학회 제188회 월례연구발표회

일자 2013년 4월 27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용인 서리 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 연구
- 김효진(고려대학교)
2. 朝鮮後期の 呂洞賓에 대한 인식과 繪畫表現
- 조인희(동국대학교)
3. 阿彌陀佛五十菩薩像에 대한 研究 - 四川地域의 像을 중심으로
- 김은아(충남대학교)
4. 조선 후기 영산재의 도량장엄화 연구
- 김정은(상명대학교)

동악미술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본 속의 한국미술”

일자 2013년 5월 4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일본에 있는 조선회화의 전래 및 존재유형과 사례
-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2. 新出 高麗 水月觀音圖 - 새로운 양식의 성립과 계승
- 정우택(동국대학교)
3.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이병창 컬렉션의 백자용준
- 최 건(전 경기도자박물관 관장)
4. 서일본지역의 고려불상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 정은우(동아대학교)
5. 일본에 있는 고려 소종 고찰
- 최응천(동국대학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23회 전국학술대회 “미술과 음식문화”

일자 2013년 5월 11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산 자를 위한 죽은 이의 그릇—중국 상주시대 청동 예기의 성격과 그 변화
- 김정열(숭실대학교)
2. 인도 쿠산왕조 베그람 출토 유리와 포도주
- 이송란(덕성여자대학교)
3. 17세기 네덜란드 미술과 음식: "빨피리를 부는 제빵사"
- 김소희(한국과학기술원)

4. 종묘제례의 제수와 제기 진설 고찰
- 이귀영(국립고궁박물관)
5. 풍속화의 農繁期 들밥(饅)과 술(酒)
- 유옥경(이화여자대학교)
6. 감로도의 공양물
- 김승희(국립중앙박물관)
7. 일본 도시락의 미학
- 조현정(한국과학기술원)

한국미술사학회 제189회 월례연구발표회

일자 2013년 5월 25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조선시대 서울 · 경기지역 童子石人 연구
- 김혜림(수원박물관)
2. 양주 회암사지 마루장식기와 연구
- 윤나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3. 일본 當麻寺 본존불에 대한 연구
- 김지호(와세다대학교 會津八一記念博物館)
4.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 研究
- 진정환(국립전주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움 “한일 고대 목기유물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일자 2013년 5월 30일

장소 창원 컨벤션센터 6층 회의실

1. 고대 한국의 목기 출토현황과 종류
- 정수옥(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 일본 고대의 목제 농기구 · 공구
- 우오즈 토모가츠[魚津知克, 오테마에대학교(大手前大學)]
3. 일본 고대의 목제 생활구
- 히가시무라 준코[東村純子, 후쿠이대학(福井大學)]
4.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생활구 목기의 검토
-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
5. 창원 신방리 · 부산 고촌리 저습유적을 통해 본 삼국시대의 목기
- 배덕환(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6.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 · 공구에 대한 검토
- 민경선(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7. 부여 복포 현내들유적에서 출토된 목기에 대한 검토
- 이의지(충청문화재연구원)
8. 아산 갈매리유적 목기의 가공과 활용

- 오원철(한국고고환경연구소)

7. 2세대 페미니즘 이후의 페미니즘 미술비평

- 정연심(홍익대학교)

한일학술심포지움

“백제 불교문화가 일본 열도에 미친 영향”

일자 2013년 6월 1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백제 사비기와 일본 飛鳥시대 궁원 비교연구
- 최문정(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 三論學 綱要書의 유통을 통해 본 백제 불교학의 일본 불교에의 영향
- 최연식(한국학중앙연구원)
3. 6~7세기 백제와 일본 사찰건축 비교연구
- 한나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4. 백제 불전장엄이 신라와 일본에 미친 영향
- 한정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5. 백제에서 본 飛鳥寺에 파견된 瓦博士의 성격
- 이병호(국립중앙박물관)
6. 白村江 전투 이후 일본의 渡來系 사원에 보이는 백제불교의 영향 - 瓦當을 중심으로
- 菱田哲郎(京都府立大學)
7. 백제 소조상의 양상과 그 전파 - 신라와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 최성은(덕성여자대학교)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여름 정기 학술대회

“페미니즘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근현대미술과 여성”

일자 2013년 6월 1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1. 19세기~20세기 초 궁녀의 針線 활동과 궁중 자수서화병풍 제작
- 황정연(국립문화재연구소)
2. 19세기 남성문인의 미인도 감상
- 고연희(이화여자대학교)
3. 망각 속의 여성: 19-20세기 기생출신 여성화가
- 최열(서울대학교)
4. 근대의 기획, '신여성'의 '사랑': 근대기 여성화가들의 상징 투쟁
- 구정화(백남준아트센터)
5. 텍스트와 실천사이에서: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미술 이론의 수용, 전개, 그리고 전망
- 양은희(숙명여자대학교)
6. 1980년대 '여성미술'에 대한 망각현상
- 김현주(추계예술대학교)